

12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자동차 140억弗 지원합의에 반등 성공 [다우: 8,761.42pt (+0.81%)]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하락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음. 140억달러 규모의 자동차 구제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움직임에 러시아가 동조할 것이란 소식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여 지수 반등에 일조했음.
백악관·민주당 자동차 140억불 지원합의	미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과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금난이 심각한 GM과 크라이슬러에게 14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제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 140억달러의 지원액은 당초 제시됐던 150억달러에 비해선 10억달러 줄어든 규모이지만, 빅3중 사정이 어려운 GM과 크라이슬러의 생존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인식이 작용했음.
미국 11월 재정적자 사상 최대	미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 대책으로 11월 재정적자가 1,644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혀 당초 전망치인 1,710억달러보다는 적었지만, 11월 재정 적자 규모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이로써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2009년 미 정부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는 두달 동안 4,016억달러에 달했고, 이는 2008 회계연도의 연간 적자규모 4,550달러에도 맞먹는 규모로, 전문가들은 올해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감산 움직임에 유가 반등, 에너지주 강세	OPEC의 생산량 감축 움직임에 러시아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제원유가 급등했고, 이 영향으로 에너지관련 기업들이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음. 이날 뉴욕증시에는 세르게이 쉬마트코 러시아 에너지장관이 다음주 17일 예정된 OPEC 회의에 맞춰 원유감산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음.
유가 3.4%↑..`빅3` 구제+ 감산 움직임` [WTI: \$43.52 +\$1.45]	국제 유가가 미국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계획 시사로 상승했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러시아가 동참 의지를 시사한 것도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음. 러시아의 세르게이 쉬마트코 에너지부 장관은 "OPEC의 감산 노력에 호응해 OPEC 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17일까지 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음.
佛. 獨증시 3일 연속 상승..英증시↓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3일 연속 상승한 반면 영국 증시는 약세. 이날 유럽 증시에서는 은행 등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리오 틴토가 대규모 감원 및 자산매각 계획을 발표, 비용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높이면서 강세를 나타내 주가지수의 상승세를 지지.

제목	주요 내용
유로화 10년 '미완의 성공'	유로화(貨)가 내년 1월로 출범 10주년. 출범 후 미 달러화에 필적하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 정치와 경제 간 시스템 불일치 문제는 여전히 EU의 치명적 약점.
중수출 7년만에 첫 감소	지난 11월 중국의 월별 수출액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해외수요가 급감한 것 외에 비교 대상인 지난해 11월 무역액이 수출은 25.3%, 수입은 22.8%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韓-日 통화스왑 규모 300억弗로 증액키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간 통화스왑 규모를 300억달러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이 같은 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한국의 외국환 부족을 막기 위해 나왔으며, 일본 역시 과도한 엔화강세를 막는 효과를 누릴 전망.
C&중공업 워크아웃 중단 위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화재가 신규 자금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C&중공업 워크아웃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음.
신규고용 `마이너스 시대` 눈앞	고용 사정이 4년11개월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1년전 보다 늘어난 일자리는 7만8,000개에 불과하며 문제는 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내년과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와 내년 상반기중에는 신규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신규일자리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